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 부문별 1차 소모임 [그린-기후대응] 부문 보고서 -

일 시	2026년 8월 4일(화) 18:00 ~ 20:00
장 소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성원보고	총 15 명 중 10 명 참석
참 석 자	진행위원 : 정란희(퍼실), 육동민(기록), 신오영(미디어) 일반단원 : 박명찬, 김형근, 김흥태, 권태수, 윤태갑, 정호선, 주보연 지원센터 : 홍윤경
미션 1. 부문별 단원 소개	
정란희 퍼실팀장 오폴마	- 환경교육 분야 활동 ▷ 현재 청남대에서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충북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마을에 배출된 쓰레기가 동물들에 의해 흩어지고 주변 환경이 어지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 이후 환경부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계기로 환경 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함. ▷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한 뒤 현재 환경교육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음. - 환경활동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 환경활동을 하면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고, 열심히 활동해도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쉬움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함. ▷ 이번 모임에서 생활권과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다행이라고 느낌. - 연구와 시민계획단 참여 ▷ 충북대학교에서 위기관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함. ▷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상황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임 ▷ 센터장의 요청으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번 활동이 자신에게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부문별 전체 워크숍까지 활동을 잘 마무리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함께 도출하기를 바람.

	사 진
육동민 기록팀장 남만돼랑이	- 도시계획 분야 경력 ▷ 현재 청주에 있는 호연기술공사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여러 도시 계획 분야가 있으며, 현재는 주로 도시개발과 아파트 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다가 청주로 내려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음. - 도시기본계획과 시민계획단에 대한 인식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계획으로, 다른 도시계획 업무와도 모두 연관돼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넓은 영역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기 때문에 시민 계획단이 모든 내용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봄. ▷ 시민계획단은 전략과 방향, 기본구상 등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현업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정해진 표현과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으면서 기존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귀를 여는 기회를 얻고자 참여함. 사 진

신오영 미디어팀장 세르토닌	- 미디어팀 역할과 활동 ▷ 시민계획단의 1차 활동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미디어팀을 맡고 있음. ▷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계획단의 전체 활동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편집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단원들의 발언과 활동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담길 수 있도록 촬영과 편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환경 분야 활동과 학업 ▷ 오랫동안 환경강사로 활동해 왔음. ▷ 현재 대학원에서 환경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처음에는 시민계획단이 운영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소속 기관 관장의 권유로 신청하게 됨. ▷ 참여한 뒤 시민계획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환경 분야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민계획단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고 느낌.
사 진	
박명찬 초록마을	- 거주와 생활 배경 ▷ 가경동에 거주하고 있음 ▷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 - 자연환경 보전 활동 ▷ 은퇴 후 처음 시작한 활동은 쓰레기 줍기와 동네 환경정화 활동이었음 ▷ 생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 시민환경활동가 교육과 활동 ▷ 청주국제에코комплек스의 시민환경활동가 과정인 '에코리더' 교육에 참여함 ▷ 지난해 7기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를 계기로 환경 분야에 대한 더욱 관심

박명찬 초록마을	- 초록마을 사업 참여 ▷ 지난해부터 초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연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며,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환경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사진 
김형근 빠빠용	- 환경문제를 크게 인식하게 된 두 가지 경험 ▷ <u>호주 물 부족 지역에서의 생활 경험</u> → 2009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인솔해 호주의 자매결연학교에서 한 달간 홈스테이를 진행함 → 해당 지역은 물 부족으로 전체 주민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7분 안에 샤워를 마치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음 → 학생들과 함께 물 사용을 줄이는 규칙을 정하고 본인도 한 달 동안 7분 샤워를 실천함 → 이를 통해 물 부족이 주민의 일상생활 전체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임을 직접 체감함 ▷ <u>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봉사활동 경험</u> → 2011년 유네스코 대표 봉사단의 일원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방문 → 게센누마 지역에서 대형 선박이 시내로 떠밀려 와 방치된 모습과 방사능 문제로 주민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 직접적인 복구활동보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곁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서 환경재난이 지역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함

김형근 빠빠용	- 두 경험 이후의 환경활동 ▷ 두 가지 경험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됨 ▷ 이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대학원 등에서 환경 관련 공부를 했으며, 약 10여 년 동안 관련 활동을 이어감 ▷ 퇴직 후 도시재생 관련 활동에 참여함 ▷ 이러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주도시기본계획에 함께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사 진 
김흥태 이백점	- 거주와 지역사회 활동 ▷ 청주에 연고를 둔 지 약 40년이 되었으며, 실제로 청주에 거주한 것은 약 4년 정도임 ▷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지역사회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활동을 마친 상태임 - 농촌생활과 환경에 대한 관심 ▷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해 농업과 환경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건강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무심천을 자주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직접 관리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 ▷ 청주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봉사활동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해당 업무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들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중 시민계획단을 알게 되어 참여함 ▷ 환경과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다른 단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램

사
진



권태수

앵달

- 주요 경력과 활동

- ▷ 환경부 산하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 청주에 거주한 지 약 20년 되었으며, 산림청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청주의 도시 변화와 기후대응에 대한 인식

- ▷ 처음 청주에 왔을 당시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리된 도농복합도시 형태였음
- ▷ 이후 20년 동안 대기업을 들어오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첨단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됨
- ▷ 도시가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그린·기후대응 분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청주에 있는 대기업과 민간기업, 관련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환경사업을 고민해 왔음
- ▷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지역의 기업·기관을 연계한 주제를 발굴하고자 참여함

사
진



윤태갑 지금보다 더 좋은세상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 청주 거주와 지역사회 활동 ▷ 1979년부터 청주와 인연을 맺고 생활해 왔으며, 약 2년 전에 퇴직함 ▷ 직장생활을 할 때는 공동체와 마을,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으나, 퇴직 후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됨 ▷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받아옴 - 환경·안전 분야의 직장 경험 ▷ 제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으며, 직장생활 중 ESG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의 환경과 시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무심천 범람 문제와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여름철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한 무심천 범람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고 있음 ▷ 1980년경에도 무심천이 상당히 위험했던 경험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범람 문제가 계속 신경 쓰임 ▷ 그린·기후대응 부문에서 무심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마련해 무심천 주변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사 진 
정호선 무당벌레	- 주요 활동 ▷ 충북의 기후위기 대응 연대기구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함께 공공교통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그린·기후대응 부문 참여 ▷ 시민계획단 신청 당시 1순위와 2순위는 다른 부문이었으며, 3순위로 선택한 그린·기후대응 부문에 배정됨. ▷ 그동안의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교통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계획단 활동에 참여하고자 함.

사
진



- 주요 경력

- ▷ 기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협력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경력은 약 20년임
- ▷ 평생교육을 전공했으며, 재작년에 오송으로 이사한 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됨

-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에 대한 관심

- ▷ 지역사회 참여의 첫걸음을 고민하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됨
- ▷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오송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됨
- ▷ 오송 제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 주민과 기존 원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주보연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청주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가 된다면 시민참여 활동을 먼저 경험하고 연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됨

Jessie
(제씨)

사
진



미션 2. 부문별 주요 현안 공유 (현안의제 별)		
현안	제안자	세부 내용
1. 산업 탄소배출 저감과 산림생태계 복원	권태수	- 산업시설의 탄소배출 저감 필요 ▷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시설이 배출하는 탄소가 청주의 주요 환경문제라고 생각 ▷ 청주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을 들었으며,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음 ▷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와 함께, 청주시 차원에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고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핵심은 기업이 내뿜는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봄.
	김흥태	- 대규모 배출원과 재난의 탄소배출 영향 파악 ▷ 개별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일반 시민 몇 명이 배출하는 양과 비교할 수 있는지 질문함. ▷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 화재나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이러한 대규모 배출원과 재난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권태수	- 산불·산사태 피해지역 조사와 복원대상 선정 ▷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기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됨. ▷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농경지나 시가지로 내려와 피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산림복원은 나무를 다시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함께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김흥태	- 과도하게 우거진 산림의 정비와 야생동물 먹이환경 개선 ▷ 과거에는 주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아궁이 연료로 사용하면서 산림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우거지지 않았음 ▷ 현재는 산림이 너무 우거져 야생동물이 산속에서 먹이를 찾기 어려워지고,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농경지와 시가지로 내려오는 원인 ▷ 산림의 일정 부분을 벌목하거나 정비해 도라지와 잔디 등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도록 하면 농가와 민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함
	권태수	- 청주시·대기업·환경단체의 협력형 조림사업 추진 ▷ 청주시와 지역 대기업, 환경 전문협회·단체가 협력해 산불이나 산사태로 훼손된 임야에 조림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지역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피해지역에 나무를 심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시 예산과 기업의 사회공헌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 협력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산업 탄소배출 저감과 산림생태계 복원	권태수	- 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과 탄소배출권 확보 ▷ 조림사업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음. ▷ 기업은 조림과 장기 관리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 탄소저감, 산림복원,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봄.
2. 기후재난 대응과 하천의 선제적 안전관리	윤태갑	- 폭염·폭우·폭설에 대비한 도시 기후재난 대응 강화 ▷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불규칙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주시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폭우 시에는 난개발과 아파트·콘크리트 포장 확대로 빗물이 지면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가 있음 ▷ 청주에서도 최근 폭우 때 위험경보가 발령되는 등 침수와 범람 위험이 커지고 있어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함.
	김흥태	- 퇴적토·갈대·수목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한 무심천 관리 ▷ 퇴적토 제거를 통한 홍수 대응 → 무심천을 매일 걸으면서 하천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함 → 무심천에 쌓인 토사를 1m 정도 파내면 제방을 1m 높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해 토사를 활용하도록 하면 시의 비용을 줄이면서 하천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함. ▷ 갈대와 수목의 정기적인 관리 → 무심천에는 나무와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시민들이 갈대 경관을 좋아하지만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함 → 묵은 갈대가 비에 떠내려가 무심천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가을철에 갈대를 베어 퇴비화하는 등 1년에 한 번씩 관리하면 시설물 피해와 반복적인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큰 나무가 떠내려와 교각에 걸리면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하천 안의 수목도 함께 관리해야 함 ▷ 하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 무심천에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음. → 홍수로 시설이 파손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복구해야 하므로, 하천 안에 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외부 폐기물 반입 관리와 자원순환체계 전환	신오영	-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기준과 관리 강화 ▷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충북으로 많이 반입되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 ▷ 수도권 폐기물의 반입 기준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육동민	- 폐기물 처리시설의 높은 수익성과 충청권 집중 ▷ 과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은 인허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장기간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 ▷ 수도권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청주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내려오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권태수	- 음성·진천 등 충북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 음식물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업체가 음성·진천 지역에 많이 위치 ▷ 수도권에서는 관련 처리시설의 허가가 거의 나지 않지만, 음성·진천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식품업체의 폐기물이 충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음. ▷ 폐기물 처리업체는 허가권 자체의 가치가 매우 높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봄.
	정란희	- 시멘트공장을 통한 충북 북부권 폐기물 반입 ▷ 충북 북부권에는 시멘트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 ▷ 시멘트공장에서도 폐기물을 연료로 태우고 있어 외부 폐기물의 충북 반입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란희	- 민간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초과 폐기물 관리 ▷ 최근 청주시가 한 민간 수거·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정한 물량을 넘어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주시가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폐기물을 받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확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반입될 가능성도 우려됨

3. 외부 폐기물 반입 관리와 자원순환체계 전환	김형근	-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와 개선 필요 ▷ 청주는 한때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지역으로 자주 언급됐으며, 이는 기존에 들어선 다수의 소각시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봄. ▷ 청주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소각시설이 집중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새로운 소각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함.
	박명찬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이후보다 발생단계 관리 강화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량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음식이 제공되고 소비되는 발생단계부터 줄여야 함. ▷ 일본의 사례처럼 추가 반찬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부담이 일부 늘더라도 사회 전체의 처리비용과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함.
	정란희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과 시민의식 개선 ▷ 종량제봉투의 성상을 조사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음. ▷ 아파트 지역은 분리배출 시설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지만, 주택단지와 원도심은 시설이 부족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전환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함.
	정란희	-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의무화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환경영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환경인식을 높여야 함. ▷ 시민뿐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인식도 충분하지 않아 환경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 ▷ 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박명찬	-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 ▷ 폐기물 처리사업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자연재해와 환경피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제는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함. ▷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함.

4. 도시녹지·도시 텃밭 확대와 열환경 개선	정란희	- 공원·가로수·바람길을 활용한 도시 열환경 개선 ▷ 청주 도심은 시멘트와 아파트가 많고 바람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봄. ▷ 가덕과 같은 외곽지역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면 비교적 시원하지만, 도심에서는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려움. ▷ 분지형 도시의 특성과 도시개발로 인한 열섬현상을 고려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함.
	윤태갑	- 탄소 포집과 도시녹화를 통한 열환경 완화 ▷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로수와 하부 관목 등을 확대해 도시를 더욱 푸르게 조성할 것을 제안함 ▷ 도시녹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폭염과 도시 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 앞으로도 기후재난과 도시녹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박명찬	- 시민 1인당 생활권 녹지공간의 점진적 확대 ▷ 그린과 기후대응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후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봄. ▷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 ▷ 현재 마을에서 초록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가경동을 예로 들어 시민 1인당 녹지공간이 현재 1이라면 이를 1.1, 1.2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목표가 필요함. ▷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으며, 주민센터나 구청에 나무 식재를 요청해도 예산 문제로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생활권 녹지의 훼손이나 부족 문제가 확인되면 빠르게 나무를 심고 정비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함.

4. 도시녹지·도시 텃밭 확대와 열환경 개선	정호선	- 도시 곳곳의 녹지와 텃밭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 ▷ 도시의 기온은 해마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와 바닥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현재의 도시구조를 바꿔야 함. ▷ 녹지공간을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하기보다, 도시의 작은 틈과 유휴공간에도 나무와 작물을 심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도시숲과 도시텃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시공간으로 인식해야 함. ▷ 현재 공유지는 공원관리법 등의 문제로 꽃과 나무는 심을 수 있지만 작물을 심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 ▷ 관상용 꽃과 나무 중심의 녹지정책에서 벗어나 공유지와 유휴공간을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도시숲과 도시텃밭을 확대하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공간을 채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기후대응이 어렵다고 봄.
	정호선	- 도시텃밭을 매개로 한 녹지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 파리 15분 도시에서는 골목과 생활권 곳곳을 텃밭으로 조성해 도시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 ▷ 도시텃밭은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 주민들이 함께 작물을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 텃밭은 주민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권의 거점이자 매개공간이 될 수 있음. ▷ 청주시도 공유지와 생활권의 작은 유휴공간을 도시텃밭으로 활용해 녹지 확대·식량 생산·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도시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녹색교통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	윤태갑	- 도시 내부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 ▷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청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시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봄 ▷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5. 녹색교통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	육동민	-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신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장기 교통계획 ▷ 자가용 이용이 편리한 청주의 교통환경 → 청주는 순환도로와 간선도로 등 도시의 큰 도로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도시 → 주차가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큰 서울과 달리, 청주는 주차할 곳이 많고 자동차 이용이 편리해 자가용 중심의 생활이 형성돼 있음. → 버스 간격이 길고 자가용 이용이 편리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하고, 한 가구에 자동차 두 대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음 ▷ 자가용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함. → 차량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은 아님 →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자율주행·무인택시 등 신교통수단 검토 → 204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인 만큼 현재의 버스만을 대중교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 트램 뿐 아니라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반 무인택시 등 신교통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새로운 교통수단이 자가용을 대신할 만큼 편리하게 운영되면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면서도 이동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신교통수단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무인택시와 같은 신교통수단 이용이 확대되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가용 이용 감소는 교통 분야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 미래 교통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청주시 차원의 장기적인 교통계획이 필요함.
	박명찬	- 걷기와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녹색교통 환경 조성 ▷ 교통부문에서 자동차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여러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출퇴근과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함. ▷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마을과 생활권 주변에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보행로와 자전거 이용공간을 녹지공간과 연계해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녹색교통 환경이 탄소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기후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6. 무심천·성안길 등 청주 대표공간의 친환경 재생	김형근	- 물관리·경관·보행환경을 아우르는 무심천 새단장 ▷ 청주의 대표공간으로서 무심천 재정비 → 청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무심천과 성안길을 꼽을 수 있으며, 무심천은 ‘청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함. → 물관리와 범람 대응뿐 아니라 보행로와 주변 경관을 포함해 무심천 전체를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시민이 야간에도 무심천을 걷고 있지만, 바닥과 보행환경 등 일부 시설이 낙후돼 있다고 봄. ▷ 청주를 상징하는 지속적인 꽃길 조성 → 다른 도시의 사례처럼 무심천에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 → 일회성으로 꽃의 종류를 계속 바꾸기보다, ‘청주 하면 무심천의 특정 꽃’이 떠오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수종이나 작물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존 벚꽃나무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 물관리와 범람 대응을 연계한 무심천 관리 → 무심천과 미호강 등 청주의 수자원을 잘 관리하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무심천 새단장은 경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수질관리와 범람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김형근	- 물과 빛의 길 조성을 통한 성안길 활성화 ▷ 성안길 공실 증가와 원도심 쇠퇴 → 성안길은 무심천과 함께 청주를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현재 공실률이 약 30~40%에 이름 → 백화점과 영플라자 등 큰 상업공간이 오랫동안 문을 닫거나 비어 있는 상황 → 온라인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성안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만,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성안길을 살리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함 ▷ 성안길 중심도로를 ‘물과 빛의 길’로 조성 → 성안길 중심도로를 특색 있는 ‘물과 빛의 길’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 도로 중앙에 물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고 투명유리 등을 활용해 시민이 물과 빛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무심천의 물을 성안길과 연결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6. 무심천·성안길 등 청주 대표공간의 친환경 재생	김형근	▷ 로봇 물고기를 활용한 수질정보와 첨단도시 이미지 구현 → 물길 안에 로봇 물고기와 조명을 활용해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 → 로봇 물고기를 통해 무심천의 수질과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시민에게 보여주는 환경정보 기능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음. →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청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 장기 공실과 빈 건물에 대한 관심 필요 → 영플라자와 그 주변에는 규모가 큰 빈 공간이 장기간 방치 →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간은 상권 침체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물과 빛의 길 조성과 함께 성안길의 공실과 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7. 시민체감형 재난대응과 공동체 회복력 강화	주보연	- 시민이 체감하는 생존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피해의 원인과 대응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큰 방향과 함께 시민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특히 오송처럼 재난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함. ▷ 시민참여 과정인 만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함.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김형근	- 재난 대응과정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시스템 마련 ▷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전후의 대응과정에서 책임을 맡는 주체가 분명해야 함. ▷ 재난정보가 전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누가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함. ▷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가 반복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함.
	주보연	- 재난정보를 서로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소통체계 마련 ▷ 재난이나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주민 누구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대규모 피해와 참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봄. ▷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주민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주민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주민들이 재난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관계를 평상시에 형성해야 함.

7. 시민체감형 재난대응과 공동체 회복력 강화	박명찬	-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재난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 강화 ▷ 스마트폰과 재난문자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재난정보시스템은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봄. ▷ 재난 발생 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도 제공되고 있음. ▷ 폭염 등 재난상황에서 방송과 안내를 통해 대피소와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마을 단체대화방이나 사랑방에 정보가 공유돼도 알람을 끄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주민이 기존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고 주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움.
	정란희	- 마을 연락망·안전지도·행동매뉴얼의 사전 마련 ▷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시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담은 매뉴얼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야 함. ▷ 지역의 위험지역과 대피장소를 표시한 안전지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가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마을 연락망을 평상시에 만들어둬야 함. ▷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누가 어떤 주민을 확인하고 구조할 것인지까지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함.
	박명찬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도시지역 재난 연락망 구축의 한계 ▷ 초록마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주민 연락처를 공유하기 어려움. ▷ 재난 연락망을 만들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실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음. ▷ 디지털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도 위급한 주민에게 직접 연락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한계가 있음. ▷ 재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락망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함.

7. 시민체감형 재난대응과 공동체 회복력 강화	김흥태	- 재난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이웃 ▷ 농촌지역에서는 이장이나 반장이 주민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긴급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음. ▷ 도시지역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이웃 간 관계가 부족해 연락처를 공유하기 어려움. ▷ 재난상황에서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평상시 이웃 간 소통이 필요함. ▷ 주민들이 연락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친하지 않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 연락망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함. ▷ 위기상황에서 이웃이 서로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주보연	- 주민 인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전략 마련 ▷ 공동체 의식과 주민 인식의 전환 → 회복탄력성이 좋은 도시는 사회적 자본이 많은 도시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 → 현재의 생활환경에서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민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함. →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고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야 함. ▷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확산 → 주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만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하고, 양성된 활동가가 다시 다른 주민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확산해야 함. → 교육과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 ▷ 텃밭을 통한 공동체 관계 형성 → 주민 누구나 함께 가꿀 수 있는 동네 텃밭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함께 작물을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 간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음. → 텃밭과 같은 생활 속 참여공간을 통해 주민의 인식을 바꾸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시민체감형 재난대응과 공동체 회복력 강화	정란희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 ▷ 재난 연락망과 상호돌봄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함. ▷ 초록마을처럼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됨. ▷ 모든 주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이 필요함. ▷ 평상시에 형성된 주민 간 관계가 위기상황에서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박명찬	- 공동텃밭을 마중물로 한 주민 소통과 상호돌봄 ▷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공유공간에 약 16평 규모의 텃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음. ▷ 어르신과 주민들이 텃밭에 모여 함께 작물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를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됨. ▷ 텃밭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생활과 자녀 이야기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성됨. ▷ 운천동에서도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들이 열매를 함께 따 먹는 등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텃밭과 같은 마중물 역할의 매개체가 필요함.

시민계획단 활동 기록	
	
단원소개 (1)	단원소개 (2)



단원소개 (3)



단원소개 (4)



현안의제 공유 (1)



현안 의제 공유 (2)



현안의제 공유 (3)



현안 의제 공유 (4)



현안 의제 공유 (5)



현안 의제 공유 (6)



현안 의제 공유 (7)



현안 의제 공유 (8)



단체사진 (1)



단체사진 (2)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부문별 1차 소모임 참석 명단

- 일 시 : 2026년 8월 4일(화) 18:0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그린·기후대응] 부문

※ 부문별 팀 일반단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접수번호	이름	생활권	진행위원	서명
1	9	정란희	상당	퍼실팀장	정란희
2	139	육동만	청원(오창)	기록팀장	육동만
3	39	신오영	서원	미디어팀장	신오영
4	26	김형근	청원	일반단원	김형근
5	28	이솔이	청원(오창)	일반단원	-
6	36	안병선	흥덕	일반단원	-
7	62	김다솜	도심	일반단원	-
8	65	정호선	서원	일반단원	정호선
9	69	이진샘	서원	일반단원	-
10	70	황선출	상당	일반단원	-
11	93	권태수	상당	일반단원	권태수
12	106	김흥태	청원	일반단원	김흥태
13	128	윤태갑	서원	일반단원	윤태갑
14	166	박명찬	흥덕	일반단원	박명찬
15	175	주보연	흥덕(오송)	일반단원	주보연